

[종합]

新年辭

2008년 새해가 밝았다. 무자년(戊子年)을 맞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착잡하다. 한국 현대사의 방황과 역사의 해를 헤쳐오지만 지난 대선을 계기로 '정치적 삶'이 되고 말았다. 지역민들은 급격한 변화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 나후면 광주·전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있다.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서 드러나듯 호남 소외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좌절할 필요는 없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역사의 고비마다 슬기롭게 대처하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왔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앞당긴 분수령이었다. 호남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새해에는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어 광주·전남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월 말엔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號)를 이끌어 갈 '이명박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안고 있는 역사적 책무는 막중하다. 차기 정부의 성격과 정책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앞날이 달라질 것이다.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진다. 정치권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등 재편작업에 한창이다.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범여권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의 선택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도 '사오정'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불안감, 고물가 등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어느 때보다 국내외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기업과 국민 개인이 희망을 갖고 의무적으로 다시 될 수 있다. 지난 5년 간 침체된 경제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젊은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의 정책을 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그만큼 수도권 비대화가 고착화된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서두르면 지방은 희생불능 사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방과 지방 간의 격차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호남권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나후에서

너지로 승화시킬 책무가 있다.

통합의 리더십을 가능할 수 있는 시급성은 인사다. 지난 번 대통령직인수위 인선에서 광주·전남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유감스럽다. '코드 인사' '편중 인사' '측근 챙기기' 등의 악습은 지역 간,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공정한 인사가 바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다.

광주·전남의 미래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 2012년 여수엑스포, 광주문화중심도시, 서남권 개발, 조선(造船)클러스터, 공동혁신도시 등 현안은 산적해 있다.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기업을 왕성하게 유치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신명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자.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광주·전남의 '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갇힌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념과 계층 논쟁에 휘말려 갈등을 빚고 반목할 여유가 없다.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가 국가와 지역의 활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지역·이념 뛰어넘어 '대통합시대' 열자

박에 없다.

올해의 최대 화두는 단연 '경제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다. 슬한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은 경제를 살리고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를 극복해 달라는 메시지였다. 이 당선자 스스로도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다.

국민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절박하다. 민생화된 청년실업과 농민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오륙

이, 그리고 지방이었다.

민생경제 살리기, 지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성장에 너무 집착하면 대기업과 부자,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 이뤄지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이 당선자가 밝혔듯 성장의 혜택이 지방과 서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차별은 소외를 낳고 불만을 증폭시키게 된다. 국민소득 '만달러 시대'를 지향하는 마당에 지역을 찢고 갈라서는 되겠는가.

국민통합도 절박하다. 지역간, 계층간, 이념간 대립구도가 상당부분 퇴색되었다고 하지만 보수와 진보에서 드러나듯 심각하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갈등을 부를 수 있다. 국민을 하나로 묶어 이를 국민적 예

각계 新年辭

살림살이 넉넉한 한해 되길

노무현 대통령 신년사



국민 여러분,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7백 해외동포와 북녘 동포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살림살이도 좀 더 넉넉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웃이 서로 따뜻하고 당장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내일에 대해서는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우

리 국민은 그때마다 하나하나 잘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도 태안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계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국가적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저도 다음 정부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인복지 선도·고품격 문화수도 조성 올인

박 광 태 광주시장



시민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성취의 기쁨으로 행복지수가 최고인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새해에도 국내외의 경제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를 노인건강과 복지의 선도도시인 한국의 '실버피어(Silverpia)'로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문화수도답게 고품격의 문화역량을 키우고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 공직자들은 올해도 142만 시민과 함께 '1등 광주'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나노·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투자유치 전력

박 준 영 전남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여수 엑스포 유치를 비롯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 우리는 청해진 시대 이후 전년 만에 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착실히 준비하면서, 서남해안 개발과 F1 국제 자동차대회 경주장 건설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을 해양 물

류와 조선산업의 진정한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신소재 산업과 생물산업, 나노와 우주항공 같은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유치에 도 전력을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차상위 계층 더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 약속

강 박 원 광주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142만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광주시의회는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담아내는 정책을 개발하면서 제도권 밖에서 고통 받고 있

는 차상위 계층 등의 애로 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면서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 신뢰받고 집행부 견제기능 다할 터

김 중 철 전남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대망의 무자년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전남도의회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전남이 국가 발전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21세기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열심히 일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현안을 바로 뛰면서 도민의 참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겠습니다.

김우중·한화갑씨 사면...박지원씨 복권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에 김우중 전 대구그룹 회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됐다. 정부는 구랍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인사들이 포함된 60여명 규모의 대통령특사를 결정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중 경제인으로는 김우중 전 회장 외에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씨앤엔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9월 형이 확정된 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특별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한화갑 전 대표가 사면됐으며 이정일 전 국회의원은 사면·복권 됐다. 또 지난 2월 투사에서 사면된 후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박지원 전 실장은 복권됐다. 그러나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형 미확정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동욱기자 tuim@

社 告

新春文藝 당선작

◇시 구두 수선공 최일걸 <전주시 원산구 평화동 2가 평화 주공 아파트>

◇동화 고삼도치의 섬 김순아 <광주시 남구 주월2동 해대 아파트>

◇소설 당선작 없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호인병원 HYUN HUI HUMANITAI 광주 남구 주월동 528-번지. 조태현 원장 외 임직원 일동. 대표전화 (062)720-1100 상담전화 (062)720-1119